

‘광주시청 주차 유료화’에 시의회 “요금 최대 낮춰라”

주차난 해소 중점·적정 주차면 확보해야...의원도 같은 요금 등 주문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가 세외수입 징수보다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광주시청사 주차가 유료화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주차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요금을 최대 낮춰라”고 주문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가 세외수입 징수보다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일 위원장은 이날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유료화 추진이 당초 목적대로 민원인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뒤야 하며 주차료 수입을 올리는 데 목

표를 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주차요금은 최대한 낮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주차장 이용자인 노동조합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며 “어떠한 차별이 있어도 안되므로 의원들도 똑같이 주차요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되도록 의원총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환 의원은 “직원들이 정기 주차권을 구입하고도 주차할 곳이 없다는지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유료

이용자들이 불편없도록 적절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관 의원은 “의회동 야외 주차장을 직원들이 하루 종일 주차해서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이 이용할 주차면이 없다”며, “차제에 20면 정도 의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조례 사후평가와 관련해 이용일 위원장은 외부기관 용역을 지양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조례 사후평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문 신뢰되는 높아지겠지만 결국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폐지와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장단점 분석을 통해 앞으로는 사후평가를 직접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부터 용역비 3000만 원을 들여 제정된 지 2년이 경과된 조례 162건에 대해 임법목적 실현성, 상위법령 적합성, 비용편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폐지 8건, 개정 36건, 규정시행 13건, 위원 성령등 9건을 조치할 것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소병철 의원 ‘공수처법’ 적시처리사건 선정 촉구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주요사안에 대한 재판 등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면서 장기미제 사건들이 누적되어 가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공수처법 사건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박종문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최근 현재가 오랜 기간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사실상의 이익이 없어진 후에야 결정이 내려진 일련의 사건들을 예로 들며, “어떤 이유든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현재가 헌법이 위임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에서 운영 중인 적시처리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상의 기준대로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는 사건들은 결정이 내려진 일련의 사건들을 예로 들며, “어떤 이유든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현재가 헌법이 위임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종문 처장은 “의원님의 말씀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헌법소원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판 절차가 너무 지연된 나머지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문제가 해결돼 재판의 이익이 없어진 연후에야 결정이 난다면, 이는 재판의 본래 역할인 권리구제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돌아가는 것”이라며, “현재는 국민이 위임한 헌법 질서 수호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동구, 무등갤러리 특별기획 판매전 개최

광주 동구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무등갤러리 특별기획 ‘무등아트페스티벌’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무등아트페스티벌’은 매년 총장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판매전시 행사이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예년과 달리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무등갤러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작품 관람이 가능하다.

청년부터 원로까지 지역작가 156명이 선보이는 회화·공예·사진·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460여 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서구, 경로당 데이터 걱정없이 스마트폰 사용 가능

광주 서구가 12일 코로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추진한 경로당 인터넷 및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KT와 협약을 맺고 지난 8월부터 경로당에 인터넷 및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와이파이 설치 완료를 통한 공공 와이파이를 개통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데이터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검색 및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코로나19로 중단된 경로당을 재개소 하는대로 KT서광주시사 소속 사회공헌팀 등과 연계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며 스마트폰 활용법 및 정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별관에 ‘물품 공유센터’ 생긴다

광주 남구는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눠 쓰는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청 별관동 1층에 물품 공유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물품 공유센터 조성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물품 공유센터가 들어서는 장소는 구청 별관동 1층 지하 주차장으로, 종합민원실 입구 맞은편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공공기관 내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다. 남구는 내년 1월 물품 공유센터 오픈을 목표로 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구, 아동 통학로 ‘그린로드’ 조성 업무협약

광주 북구가 아동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나선다.

북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소장 오숙희) 등 8개 기관과 함께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그린로드 대장정’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광주시의 ‘시민 정책 마켓’에서 선정된 ‘그린로드 대장정’은 아동 친화적인 보행로를 조성해 통학 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는 북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TBN광주교통방송, 용주초등학교, 용주초등학교 학부모회, 용봉동주민자치위원회, 용봉보물터 등 교통 유관기관과 단체도 참여했다.

광산구, 비대면 시대 집에서 가족과 즐기는 숲 체험

광주 광산구가 시민의 코로나19 우울증 극복 등을 위해 자연 활동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언택트 스키로온 유아숲 페스티벌’을 예고하고, 참가 가족을 모집한다.

5회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유아숲체험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숲 꾸러미’를 유아에게 제공해 각 가정에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6~7세 유아에게 가족이 페스티벌 참가를 신청하면, 광산구가 숲 꾸러미를 선착순 100가족에 지급한다.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광산구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받는다.

임형택 기자

광주교육연수원, ‘신규 지방공무원 공직적응 연수’ 운영

16일까지 임용예정 71명 대상

광주교육연수원이 12~16일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71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방공무원 공직적응 기본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광주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임용예정자 71명을 각각 34명, 37명씩 나눠 2개 분반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 2회 발열 체크 및 강의실 소독 등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신규 지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자 기본인성과 소양



을 함양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습득 및 업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연수 내용은 친절과 소통 중심의 민원 응대 등 기본소양 과목과 학교회계 처리, 보수 및 인사관리, 공문서 작성 등 신규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전문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수 첫 날인 12일 오전 10~12시 시교육청 류혜숙 부교육감이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을 통해 신규 임용예정자들은 광주교육의 주요 정책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공유했다.

류혜숙 부교육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법과 예산에 근거한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을 해야 한다”며 “최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 신규 공직자로서 시대적 요구와 사명에 공감하고 한 차원 높은 공직관을 실천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어가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례님께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월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3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2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1월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